제2020-38호 참되고 슬기롭고 명랑하게 담당: 민주시민교육부 박은학

미 원 통 신

배움을 즐기는 어린이
서로 어울리는 어린이
문화로 공감하는 어린이

477-853 가평군 설악면 신천중앙로 120-11 ☎ 교무실 584-7708, 행정실 584-2953, FAX 584-7316

어린이 안전 생활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각종 생활 안전 수칙을 안내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잘 읽어주시고 가정에서도 안전 지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빈번하게 발생하는 10가지 교통사고유형과 예방법 >

1. 무단횡단 사고

무단횡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나 육교, 지하도로 건너야 한다.

2.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이 빨간색인데 길을 건너거나, 초록색 불이 들어오자마자 뛰는 경우는 위험하다. 항상 횡단보도의 오른쪽에 서서 손을 들어 <차량 멈춤>을 확인한 후 건너간다.

3.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내가 먼저 갈까?', '저 차를 먼저 보낼까?' 하다가 '서로 양보해 주겠지!' 하며 먼저 가려다 사고가 나므로 반드시 손을 들어 차량 멈춤을 확인한 후 건너간다.

4. 주, 정차된 차량사이 횡단사고

찻길을 건너기 위해 세워둔 자동차 사이에서 갑자기 뛰면 차에 가려 어린이가 안보여 사고위험이 18배나 높으므로 차 사이로 걷거나 뛰지 않는다.

5. 갑자기 뛰어나오다 발생한 사고

공이 찻길로 가거나 길 건너편에서 친구가 불러도 갑자기 뛰어들지 말고 항상 차가 오지 않는지 확인한 다음 손을 들고 건너간다.

6. 버스의 바로 앞, 뒤 횡단사고

버스 앞뒤로 횡단시 버스에 가려 어린이가 보이지 않으므로 반드시 버스가 지나간 다음 손을 들고 <차량 멈춤> 을 확인한 후 건너간다.

7. 큰 차가 회전하다 나는 사고

큰 차가 돌 때 그 안쪽에 어린이가 서 있으면 앞바퀴에는 치이지 않더라도 뒷바퀴에 치일 수 있으므로 큰 차가 지나갈 때는 차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8. 차 뒤, 밑에서 놀다 나는 사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차 뒤, 옆에 있는 어린이가 보이지 않으며 멈춰있는 차는 항상 뒤로 움직이므로 차 뒤, 옆에서 놀지 않아야한다.

9. 보호 장구 장착 안 해 일어난 사고

자동차를 탈 때 매우 위험한 앞좌석에 앉지 않으며, 뒷좌석에서도 반드시 보호 장구나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10. 자전거, 킥보드 사고

자전거는 안장에 앉아서 발끝이 땅에 닿는 상태의 자전거를 타며 **반드시 헬멧과 무릎보호대를 착용하고 차가 다니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서 타야 한다.

<자전거 안전 운전 수칙>

- **자신의 몸에 맞는 자전거**를 이용한다.
- 안전모(헬멧), 팔꿈치 및 무릎 보호대, 장갑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 자전거 도로를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한다.
-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자처럼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넌다.
- 좁은 길에서 큰길로 나갈 때는 반드시 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한다.
- 모퉁이나 커브 길은 속도를 줄여 천천히 돈다.
- 핸들을 놓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두 손으로** 꼭 잡고 탄다.
- 밤에 자전거를 탈 때에는 반드시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켠다.
- 자전거 타기 전 **안전점검**(타이어, 브레이크, 체인 등)을 한다.



<가정생활 안전 수칙>

- 난간이나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는다.**
- 부모님 허락 없이 세탁기 주변에 가지 않는다.
- 물건을 밟아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내가 가지고 논 장난감은 바로 치운다.
-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은 **부모님 허락 없이 먹지 않는다.**
- **부모님이 주신 약**만 먹는다.
- 뜨거운 것을 옮겨야 할 때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부모님의 허락 없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지 않는다.
- **물이 묻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만지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 전기제품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끄고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는다.
-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2020년 4월 22일

미원초등학교장 김 명 희